

# 강정호 시즌 5호 솔로포 팀 영봉패 막아

## 김현수 볼넷출루 1득점 대타 이대호 핫스윙 삼진

‘킹콩’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9회말 팀의 영봉패를 막는 솔로포(시즌 5호)를 쏘아올렸다.

강정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4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9회 대포를 작렬했다.

피츠버그가 0-3으로 끌려가던 9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정호는 아로디스 비스카리노의 2구째 시속 96마일(약 154km)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뚫아,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시즌 5호로 지난 16일 시카고 컵스전에서의 4호 홈런 이후 사흘 만에 나온 아치다.

강정호는 앞선 타석에서는 침묵했다. 1회말 2사 2루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상대 선발 홀리오 테이렌의 6구째에 엉덩이를 맞아 출루했다. 시즌 3번째 몸에 맞는 공이다.

하지만 후속타자 프란시스코 서벨리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 더 이상 진루하지 못했다. 강정호는 4회 1사 후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 3구 시속 81마일(약 130km) 체인지업을 노렸지만 3루수 땅볼로 돌아섰고 7회에는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이날 3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몸에 맞는 볼 1개를 기록한 강정호는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276에서 0.281(32타수 9안타)로 소폭 올랐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홈런으로 간

신히 영봉패를 면했지만 추가점을 내지 못해 1-3으로 졌다.

3연승 행진을 마감한 피츠버그는 2승18패를 기록했다.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캠든 아드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9번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1타수 무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팀이 3-2로 조금 앞선 5회 선무타자로 나선 김현수는 7구까지 가는 풀카운트 접전 끝에 위커에게서 볼넷을 골라냈다.

후속타자 조이 리카드 때 나온 상대의 실책과 매니 마차도의 땅볼로 3루까지 나아간 김현수는 트럼보 타석 때 나온 위커의 쪽투로 홈을 밟았다. 시즌 3번째 득점.

이대호는 시애틀이 2-4로 끌려가던 8회 1사 만루에서 대타로 나섰다. 핫스윙 삼진으로 돌아서 찬스를 날렸다. 자크 브리튼의 시속 96마일(약 154km)짜리 직구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던 이대호는 결국 6구째 바깥쪽 낮은 직구에 헛손질을 했다.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50에서 0.245(63타수 13안타)로 낮아졌다. 시애틀이 8회 1사 만루의 찬스에서 한 점도 뽑지 못한 가운데 리드를 지킨 볼티모어는 이어진 공격 1사 1,3루에서 조나단 스쿠프가 희생플라이를 쳐 5-2로 달아났다.

볼티모어는 8회 1사 만루의 위기에 마운드에 오른 브리튼이 9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무실점 피칭을 펼치면서 그대로 이겼다. 브리튼은 11세이브를 챙겼다.

볼티모어 선발 크리스 틸만은 6⅓이닝 4피안타(1홈런) 2실점을 기록하고 시즌 6승째(1패)를 수확했다.



강정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4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9회 대포를 작렬했다.

/김민근기자

## 이상중 전 전북대학교수 생활체육위원장 선출

이상중 전 전북대학교수가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도체육회 사무처장실에서 열린 2016년 제 1차 생활체육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 도민 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결과 등 각종 현안 업무 보고를 시행했다.

또한 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추진 상황 등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사항 논의도 함께했다.

이날회의에서 선출된 이상중 위원장은 “앞으로 생활체육 분야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골든스테이트, 서부콘퍼런스 2차전 118-91 승리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오를라호마 시티 썬더에 설욕했다.

골든스테이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의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오를라호마시티와의 2015~2016 NBA 서부콘퍼런스 결승(7전4선승제) 2차전에서 슈터 스테판 커리를 앞세워 118-91로 승리했다.

1차전 패배를 설욕한 골든스테이트는 시리즈 전적 1승1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커리는 3쿼터에서만 17점을 올리는 등 3점슛 5개 포함 28점을 올리며 해결사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클레이 톰슨과 안드레 이귀달라가 각각 15점, 14점을 지원했다.

오를라호마시티는 케빈 듀런트가 29점을 올렸지만 턴오버를 혼자 8개나 범해 흐름을 끊었다. 승부처였던 3쿼터에서 커리를 막지 못해 무너졌다.

57-40로 전반을 앞선 골든스테이트는 3쿼터에서 승부를 결정했다. 커리가 내외곽에서 공격력을 뽐내며 오를라호마시티의 기를 꺾었다. 골든스테이트는 88-68, 20점차로 앞서며 3쿼터를 마쳐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

양 팀은 오는 23일 오를라호마시티의 홈구장 체서피크 에너지 아레나로 강소를 옮겨 3차전을 갖는다.

/김민근기자

## 중 알리바바, FIFA와 '스폰서십' 협상 중

중국의 공룡 기업들이 지난해 터진 부패 추문의 후폭풍으로 스폰서십을 구하지 못해 실망감이 쏠려온 국제축구연맹(FIFA)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있다.

다렌 윈다가 올해 초 FIFA와 스폰서십을 체결한 데 이어, 마윈이 이끄는 알리바바가 파트너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이 FIFA와 최상위 스폰서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FIFA의 스폰서는 지원 규모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최상위 등급인 파트너들은 매년 4000만 달러(약 470억원) 가량을 지원하며, 이 지위는 4년간 유지된다. 독일의 아디다스, 미국의 코카콜라, 러시아의 가즈프롬, 한국의 현대자동차, 미국의 비자, 중국의 다렌 윈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의 명문구단인 광저우 에버그레이트 지분의 절반을 보유한 알리바바가 파트너사 지위를 확보하면 FIFA에는 한 줄기 단비가 될 전망이다. 중국 기업들이 돈줄이 마른 FIFA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축구 굴기 시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전라북도체육회, 소년체전 앞두고 훈련선수단 격려

##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오른 12위권 안 진입 목표로 노력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 될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을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 선수단을 격려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44회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20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34개로 종합 13위의 성적으로 마감했던 전북선수단은 올해 대회에는 한 단계 오른 12위권 안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노력하는 선수단을 위해 지난 17일 육상, 펜싱, 배구, 핸드볼, 배구, 정구 등 6종목 방문 시작으로 18일

역도, 체조 근대3종, 레슬링, 핸드볼 5종목 등을 방문하며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19일부터는 양궁, 씨름, 유도, 배드민턴, 태권도, 하키 등 나머지 종목 격려 방문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일선에 나서서 격려를 진행하고 있는 도체육회 최영원 사무처장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부상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많은 도민들이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할 것이니 다들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